

### 고속·고집적 D램 개발

일본 마쓰시타 전기 산업 (<http://www.panasonic.co.jp>)이 고속 작동 성능과 집적도 향상을 양립시킨 D램을 개발했다.

마쓰시타는 메모리의 기본단 위인 셀 구조를 개량, 크기를 기존D램의 절반 정도를 줄이면서 6배나 빠른 고속작동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D램 개발에 성공했다.

2003년 실용화를 목표로 개발된 이 D램은 따라서 향후 게임기 및 AV기기 등으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쓰시타가 이번에 개발한 D램은 트랜지스터와 축전기가 각각 한 개씩인 기존의 D램 메모리 셀에 비해 트랜지스터를 2개로 늘려 한쪽의 트랜지스터에서 명령을 전송, 정보를 입력시키면서도 다른 한쪽의 트랜지스터에서 별도의 명령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S램 수준의 초고속 처리속도를 실현했으며 정보를 입력시킬 때 생기는 잡음을 막는 배선구조 등으로 입력전에 실시하는 잡음방지 작동도 필요 없게 됐다.

최근 게임기 및 AV기기 등의 영상을 고속 처리하는 소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MPU와 고속대용량 메모리 등을 집

적한 소형 시스템LSI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D램은 집적성이 뛰어나지만 속도는 더딘 단점이 있다. S램 역시 고속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셀 면적이 D램의 약 10배 크기이기 때문에 고속대용량 메모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 세계 반도체 장비시장 '파란불'

세계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앞으로 3년간 연간 20~30%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관련 전문 인터넷뉴스의 「세미컨덕터비즈니스는 미국 VLSI리서치(<http://www.vlsiresearch.com>)를 비롯한 유력 시장조사 업체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 자료를 토대로 올 세계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이 전년 대비 최소 20%, 최대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들어서는 30%까지 상향 수정한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VISI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99년 하반기에 회복세로 들어선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은 지난해 규모가 전년보다 10.4% 많은 292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26.6%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며 370억달러로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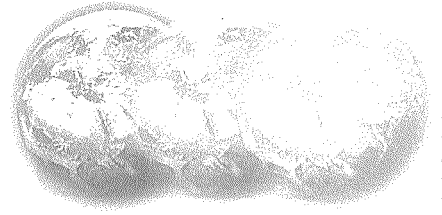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같은 높은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내년에는 26% 늘어난 465억달러, 오는 2002년에는 30% 증가한 6000억달러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장비 시장이 이처럼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해부터 반도체 시장이 성장세로 돌아서 호황을 보이고는 있지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지난 2년간 신규 투자나 기존 설비 확장 등의 거의 동결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생산 설비의 가동률이 90%로 올라가며 공급력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기존 설비를 개량해 생산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반도체장비 시장 확대를 부추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0.13미크론 미세가공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장비나 재료, 공정 등의 구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차세대를 겨냥해 구리배선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게 투입되고 일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향후 2년간 300mm 웨이퍼의 시험생산을 겨냥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IT 16사 '표준화' 합의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주요 IT 업체 16개사가 휴대기기의 초고속 네트워크 접속기술 표준화에 합의했다.

LG그룹(<http://www.lg.co.kr>)과 삼성그룹(<http://www.samsung.co.kr>), 미국의 퀄컴(<http://www.qualcomm.com>)과 루센트 테크놀로지스(<http://www.lucent.com>), 일본의 도시바(<http://www.toshiba.co.jp>)와 소니(<http://www.sony.co.jp>) 등 16개사는 퀄컴이 개발한 휴대단말기를 사용한 초고속 인터넷 접속기술 「고속데이터전송(HDR)」을 국제표준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16개사는 금년중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전기통신연합(ITU)에 이 HDR 기술에 대해 국제표준 방식으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 사업자에게도 이 기술의 채택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HDR는 데이터통신 전용 시스템에서 기존의 전화회선으로 데이터 통신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최대 32배나 되는 대용량·고속 데이터의 수신이 가능하며 음성용 전화와 네트워크용 데이터통신을 대역별로 구분해 최대

2.4Mbps의 초고속 통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기술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부가 서비스로서 무선기지국 일부를 공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투자가 비교적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특히 CDMA와 HDR의 복합단말기를 개발할 경우 이용자는 한 개의 단말기로 전화와 데이터통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HDR가 국제 표준이 될 경우, 각국에서의 도입 절차가 간소화되며 특히 하나의 단말기를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일본에서는 NTT도코모와 일본텔레콤이 HDR와는 별도의 방식을 채택한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입을 결정, 오는 4월 우정성에 사업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 중, 반도체시장 고성장 질주

중국 반도체 시장이 오는 2001년에는 북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시장조사회사인 카너인스탯그룹(Cahners In-Stat Group) 조사에서 중국 반도체 시장이 1999~2003년 사이에 연평균 33% 성장세를 보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

여 2010년께 세계 제2위의 반도체 시장 규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이 조사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 86억달러를 돌파, 세계시장에서 약 5.9%를 차지했고 오는 2003년에는 매출이 270억달러에 육박,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또한 8.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회사는 또 2003년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3120억달러에 이를 것이며 미주 지역이 전체 시장의 31.1%, 일본이 21.8%,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20.6%, 유럽이 17.9%를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카너인스탯그룹은 이 같은 중국 반도체 시장 증가추세를 놓고 볼때 오는 2010년까지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IMT2000' 사업 제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미국 인텔(<http://www.intel.com>)과 일본 미쓰비시전기(<http://www.melco.co.jp>)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에서 제휴한다.

이에 따라 인텔은 휴대폰 단말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고

# News

## 해외업계소식

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MPU) 등을 미쓰비시에 공급하는 한편 미쓰비시는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무선기지국에 연결하는 기술을 인텔에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봄 상용화 서비스에 들어가는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둘러싼 인텔과 미쓰비시간의 전격적인 제휴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 관련 기업들의 개발 및 제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텔은 휴대폰 단말기용 반도체를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일환으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제휴로 미쓰비시가 최초의 제휴 상대 업체가 된다.

차세대 이동통신과 관련, 인텔은 주로 휴대폰 단말기에 사용되는 차세대 고성능 MPU 및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무선장치용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중이다. 미쓰비시는 휴대폰과 기지국을 무선 연결하는 접속기술에 강하다.

따라서 이번 제휴는 우선 인텔의 경우 차세대 휴대폰을 접속기술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지닌 미쓰비시의 기술을 활용하면 제품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대폰 단말기용 반도체를 자체 조달해 온 미쓰비시는 동영상이 중심이 되는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불가피한 고속 처리력

이 뛰어난 인텔 반도체를 조달, 제품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세계반도체산업 설비·생산·가동률 작년 4분기 '사상최고'

지난해 10~12월까지의 세계 반도체 산업이 설비, 생산력, 가동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반도체업체 약 50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반도체 생산능력통계(SICAS)」의 조사에서 99년 4·4분기(10~12월) 반도체생산설비의 가동률은 93.6%를 기록, 96년 첫 조사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가동률과 역시 이 기간 동안 월 778만장(6인치 웨이퍼 처리 능력환산)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동률과 생산능력의 사상 최고 기록은 세계적으로 증산바람이 불고 있는 휴대폰단말기 및 PC등 정보통신기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휴대폰단말기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시스템LSI 등을 양산하는 최첨단설비(최소선폭 0.3 마이크론 이하)는 97.6%라는 풀생산체제를 기록했다.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플레이어 등 음향·영상(AV) 제품용 마이크로컨트롤러

(MCU)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 생산설비의 가동률은 99년 1·4분기에 84.5%였으나 4·4 분기에는 이보다 9.1% 포인트 많은 93.6%로 상승했다.

한편 SICAS는 올해 반도체 수요에 대해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용하는 디지털가전 제품이 본격적으로 보급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블루투스 방식 헤드셋 세계 첫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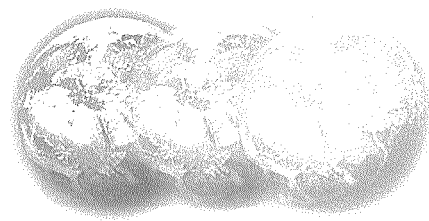
스웨덴의 이동전화기 제조업체 에릭슨(<http://www.ericsson.com>)이 세계 최초로 블루투스 방식 이동전화용 무선 헤드셋을 개발했다.

에릭슨은 자사의 무선 헤드셋이 블루투스 방식을 채택해 노키아, 모토로라 등의 이동전화 단말기와도 호환성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이 제품을 올 중반 북유럽에서 한정 출시한 후 연말부터 대량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 향후5년간인터넷 비즈니스 10대변화 "B2B 규모 3년내 6조 달러"

앞으로 5년 동안 인터넷은 과거 몇년간보다 훨씬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 IT 관련 컨설팅업체인 「컴퓨터이코노믹스」(<http://www.computereconomics.com>)는 향후 5년간의 인터넷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 10가지에 달하는 변화를 전망했다. 컴퓨터이코노믹스가 예측한 10가지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3억5000만명의 인터넷 수요자 중 적어도 4분의 1은 무선기기를 이용하게 된다.
2. 유럽 및 남미,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웹사이트의 콘텐츠는 더욱 글로벌한 규모로 성장한다.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거래액이 향후 3년내 6조달러를 넘어 설 것이다.
4. 인터넷 기업을 이끌어 가는 기업들가의 평균 연령이 향후 5년간 낮아져 닷컴기업을 일으키는 10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5. 인터넷사업을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언어에 의한 문화적 내용을 고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6. 웹사이트가 다수의 언어로 확장됨에 따라 여성, 남성, 10대, 히스패닉, 아시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게이, 레즈비언 등 특정 그룹용 웹사

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7. 소비자의 수요증가 및 기술 통합에 의해 기존의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창출이 기대되며 컴퓨터, 신클라이언트(Thin Client)기기, 비디오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등 다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진다.
8. 비독점권의 지지 및 기술통합이 가속화돼 현재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간다.
9. 전자상거래에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그 기준이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10. 사이버 테러는 기업간, 정치권력, 사회계층 등의 경쟁에서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일, 전자업체 설비투자 본격화**

일본의 주요 종합전자업체들이 경기회복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움직임이다.

히타치 제작소(<http://www.hitachi.co.jp>), 후지쯔(<http://www.fujitsu.co.jp>), NEC(<http://www.nec.co.jp>), 도시바(<http://www.toshiba.co.jp>)등 일본 전자업체들이 액정 및 반도체,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적극나선다.

히타치는 당초 올해의 설비투자를 전년과 같은 수준인 1250억엔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하반기의 설비투자를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시킨 1000억엔으로 계획하고 있어 투자액이 최근 2~3년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액정표시장치의 전용공장 신설 및 시스템LSI용 설비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후지쯔는 데이터센터의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수요증에 대응해 고기능 PC를 설치한 데이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의 수주 확대를 꾀한다.

또 반도체 미세가공분야에 1000억엔을 투자해 200mm라인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NEC는 반도체에만 800억엔을 투입해 200mm 웨이퍼라인을 신설한다는 계획이고 도시바는 반도체와 더불어 노트북 컴퓨터 생산을 위한 라인증설에 역점을 뒤 세계 점유율 1위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일, 올 반도체 투자 6500억엔 이상**

일본 반도체업체가 올해 대단위 설비투자에 나선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5사의 올 예상투자액은 지난해

# News

## 해외업계소식

5370억엔을 크게 웃도는 최대 6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NEC(<http://www.nec.co.jp>)가 200mm 웨이퍼의 신규 라인을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바(<http://www.toshiba.co.jp>)는 플래시메모리를 증산할 예정이다. 히타치(<http://www.hitachi.co.jp>)는 업계 유일의 300mm 웨이퍼 설비 도입에 나섰다. 이처럼 일존 반도체사들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사업실적 호조에 기인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차세대 제조설비의 예상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각 생산업체들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동전화단말기와 PC의 급성장으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생산라인 증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NEC는 총 800억엔을 투자, 200mm 웨이퍼라인을 NEC 규수공장에 신설한다.

이 공장에서는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를 탑재한 그래픽 관련시스템 LSI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D램은 NEC히로시마의 구 150mm 라인을 200mm 라인으로 교체해 증산한다는 방침이다. 로직계통으로는 NEC야마가타의 쓰루오카공장에서 증산할 예정이다.

NEC는 차세대 300mm라인

도입에 대해 히타치제작소와의 D램 합병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올해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시바는 미국의 샌디스크와 합작 생산하는 플래시메모리 신규라인에 주력할 예정이다. 도미니온공장의 모듈2에 7000억엔을 투입, 올 가을부터 256Mb 제품을 양산한다. 오는 2002년까지는 200mm 웨이퍼를 월 1만7500장 생산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바는 자사의 강점인 디스크리트 부문에도 200억엔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LSI 거점이 오이타공장에서도 SCE와의 합병으로 생산되는 게임기용 프로세서에 대비, 신규 투자에 나섰다. 총 투자액은 전년도를 상회하는 1300억엔 정도로 전망된다.

히타치는 지난해 투자액 1450억엔보다 약간 많은 1500억엔을 올해 투자액으로 정하고 일본업체로는 유일하게 300mm라인의 건설에 나선다.

또 대만의 UMC와 공동으로 히타치나키공장 N3에서 신라인을 구축, 오는 2001년 4월부터 시스템 LSI를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후지쯔는 미세가공 분야에 1000억엔을 들여 와카마쓰공장의 150mm라인과 200mm라인이 혼합돼 있는 제2동을 200mm로 통일할 계획이다.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는 미국의 AMD와 공동으로 세운 합작사 FASL에서 현 생산능력 월 1만5000장을 3만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총 700억엔을 투자한다. 로직 제품을 생산하는 니시조공장에 약 200억엔을 투입, 150mm라인을 200mm로 일관화하고 플래시메모리에 대해서는 생산거점인 구마모토공장의 생산능력을 월 2만장에서 3만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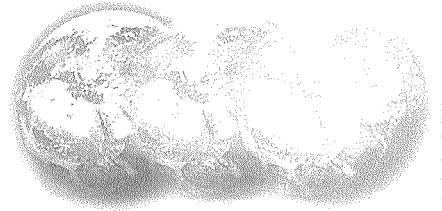
또 독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S램도 현 1만장에서 1만3000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BS디지털방송용 LSI칩세트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http://www.panasonic.co.jp>)은 오는 12월 본방송이 개시되는 일본의 방송위성(BS)디지털방송 규격에 대응하는 고품위(HD)시스템 LSI칩세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마쓰시타가 이번에 개발한 칩세트는 HD비디오코너LSI와 32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MCU)내장BS디지털방송용 시스템 LSI등 2개의 칩으로 구성돼 데이터방송과 BS디지털방송 수신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특히 그래픽 표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1.5GHz칩 ‘윌라멧’ 발표

인텔(<http://www.intel.com>)이 차세대 마이크로프로세서 1.5GHz 제품과 손바닥 크기의 PC 및 USB2.0 표준을 지원하는 그래픽보드를 발표했다.

인텔은 차세대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윌라멧에 대해 업무용 및 일반 수요자에게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윌라멧은 「하이퍼 파이프라인드(Hyper Pipelined)」라는 새로운 디자인 기술을 채택했고 올 가을부터 시판된다.

인텔 CEO 앤드루 그로브는 『향후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신기술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해서는 1.5GHz를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칩의 개발이 절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텔은 기존의 USB 1.1보다 40배나 속도가 개선된 2.0제품과 PC 그래픽기능을 개선한 「비욘드 AGP4x 이니셔티브(Beyond AGP4x Initiative)」도 함께 발표했다.

이 제품은 고화질 비디오카메라 및 프린터 등 PC 주변기기들의 고성능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미,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 을 6% 성장 낙관

일부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하는 미국의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은 올해 전년비 약 6% 증가한 860억달러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 영상기기와 PC, 무선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가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VD는 60% 이상 성장하며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가정용 전자기기협회(CEA)는 최근 발표한 「2000년 수요 예측」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예측했다.

영상기기 부문에서는 DVD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성장세를 유지,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65%가 늘어난 659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DVD는 시장 형성 4년만에 연간 규모가 600만대를 넘는 거대시장으로 도약하게 된다.

디지털카메라도 올해는 30% 증가의 높은 신장률을 기대 시장규모가 268만대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더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년비 10% 확대된 547만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형 컬러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TVCR도 전년비 8% 증가한 465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컬러TV는 대수로는 2350만대로 거의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격 하락으로 금액으로는 전년 실적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션 TV는 대수(112만대), 금액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돌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 관련에서는 PC가 전년보다 13% 늘어난 1680만대로 확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무선전화기도 16% 늘어 18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카오디오 부문은 6% 증가해 22억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EA는 오는 2003년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 규모가 출하 기준으로 1048억달러에 이르러 「1000억달러대」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 스웨덴 정보화지수 ‘세계 1위’

세계적으로 정보사회지수(ISI)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미 시장조사기관 「인터내셔널 데이터(IDC)」(<http://www>.

# News

## 해외업계소식

idc.com)가 월드타임스와 공동으로 전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정보사회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웨덴이 총점 5062점으로 미국(5041점)을 제치고 올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의 세계 1위는 기업체 직원들이 저가로 PC를 구입할 수 있는 EPS(Employee Purchase Scheme) 프로그램의 실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IDC는 밝혔다.

이외에도 대만이 인터넷과 컴퓨터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작년 21위에서 올해 18위로 3단계 상승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호주와 일본이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정보사회지수 톱20>

순위	국 가	지수 총점
1	스웨덴	5,062
2	미국	5,041
3	핀란드	4,577
4	노르웨이	4,481
5	덴마크	4,336
6	캐나다	4,336
7	네덜란드	4,230
8	스위스	4,174
9	호주	4,129
10	일본	4,093
11	싱가포르	4,014
12	영국	3,807
13	독일	3,558
14	홍콩	3,484
15	벨기에	3,419
16	오스트리아	3,397
17	뉴질랜드	3,289
18	대만	3,177
19	아일랜드	3,144
20	이스라엘	3,140

세계 전체의 정보사회지수는 작년보다 7.17% 상승했으며, 중부유럽과 북미지역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마리용」이 작년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IDC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보산업, 인터넷, 컴퓨터, 사회기반 등 4가지 분야의 23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며 『조사결과 인터넷 인프라가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작년 아·태 PC시장 98년보다 37% 신장

작년 아태지역의 PC 판매량이 전년보다 37% 성장, 사상 최고치인 2490만대를 기록했다.

미 시장조사 기관 IDC에 따르면 아태지역 최대 PC 수요치는 일본으로 작년엔 1080만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37% 성장, 전체 아태 수요의 43%를 차지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두번째 큰 시장을 형성, 작년엔 25.6% 늘어난 490만대를 판매하며 아태시장에서 19.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은 작년엔 220만대를 판매해 전년엔 120만대보다 83% 증가해 아태지역의 8.8% 규모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호주로 작년엔 190만대를 팔아 전년엔 179만대보다 11.7% 늘어났

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인도네시아가 작년엔 28만대를 팔아 전년엔 7만 5000대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인도는 작년엔 처음으로 100만대를 넘어 눈길을 끌었다.

IDC는 아태지역의 작년 PC 판매 호조는 인터넷 붐과 아울러 PC 가격 하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요인은 올해에도 동일하게 이 지역 PC시장 팽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에서 PC를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는 IBM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IBM의 시장점유율은 98년 8.1%에서 작년엔 8.4%로 소폭 올랐다.

그러나 98년 최고판매업체에 올랐던 컴팩은 작년엔 7.3%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 앉았다. 중국 최대 PC업체 레전드홀딩이 80% 정도의 중국시장 점유율에 힘입어 이 지역에서 7.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3위를 기록했다.